

다양한 양계 질병 실험 사례와 상품 발표

터키 이스탄불에서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14차 세계양계수의사학회에 앞서 지난 8월 20일 바이엘 주관으로 4차 국제양계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본 기자가 터키 이스탄불 현장을 방문하여 양계심포지엄과 세계양계수의사학회를 취재하고, 더불어 터키 육계산업 현장을 탐방하고 돌아왔다. 이번 호는 바이엘 양계심포지엄과 세계양계수의사학회 개최 현장을, 다음호에는 터키 농업과 대표적인 육계계열회사 Bavit 소개를 연재한다.

1. 4차 바이엘 국제양계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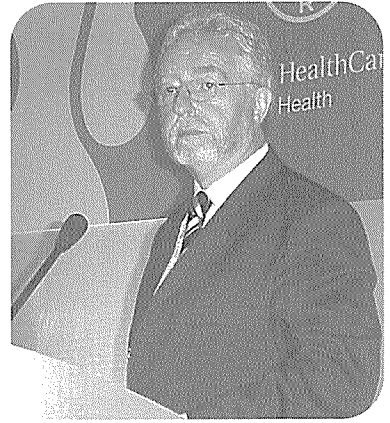
세계에서 양계질병 전문가 250여명 참석



▲ 그루버 바이엘 마케팅 책임자

바이엘사가 주관하는 4차 국제양계심포지엄이 지난 8월 20일 터키 이스탄불 Klassis 호텔에서 30개국에 온 250여 명의 양계수의사 및 양계질병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바이엘사의 마케팅 책임자 프리에드리치 그루버 박사는 환영사를 통하여 “우리 바이엘사의 R&D 분야의 성공은 양계분야에 있어 연구자, 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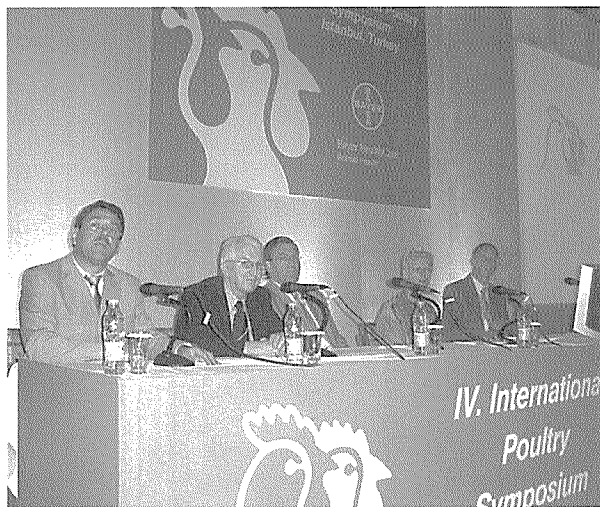


▲ 존스 심포지엄 좌장

사, 농가, 가공업자 등과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온 결과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당부 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제1주제 항균제의 반응과 활성화, 제2주제 칠면조 호흡기 질병, 제3주제 닭 붉은 움(이) 만연 대책, 제 4주제 콕시듐 해결 등으로 나누고 좌장은 영국의 리버풀 대학 존스 박사가 맡았다.

양계산물로 인한 항생제 잔류 미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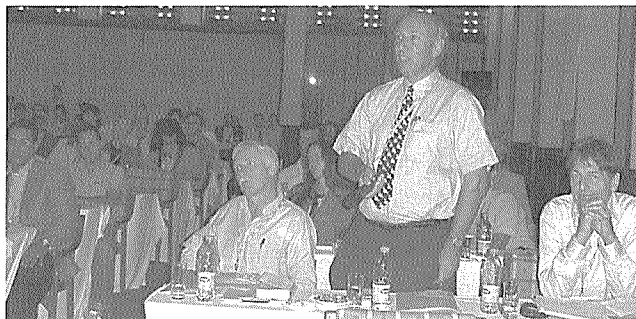


제 1 주제 시간에 로빈 박사가 유럽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닭으로부터 항생제 잔류 결과를 발표하였다.

로빈 박사는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음식으로부터 즉 축산물 소비로 인한 항생제 잔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하였다. 또한 독일의 트루디 박사는 캄필로박터와 살모넬라의 내성 작용기작과 전파에 대하여, 독일의 피터 박사가 캄필로박터의 전망을, 독일의 안노 박사가 살모넬라에서 퀴놀론 항생물질 내성 역학의 중요 특징을 대해, 호흡기성 대장균증 치료제 바이엘사의 Baytrill®에 대하여 실증 자료 설명이 있었다.

닭 붉은 옴 신제품 올해 출시 예정

제 3주제 닭 붉은 옴(이)이 만연 대책으로 프랑스 Chauve 교수가 실용산란계의 붉은 닭 옴의 특징과 독일 바이엘사의 Heine 박사가 붉은 옴 치료제 ByeMite®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닭 붉은 옴 치료와 관련하여 한국 바이엘 윤현중 수의사는 바이엘 신제품이 올해 유럽에 등록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내년쯤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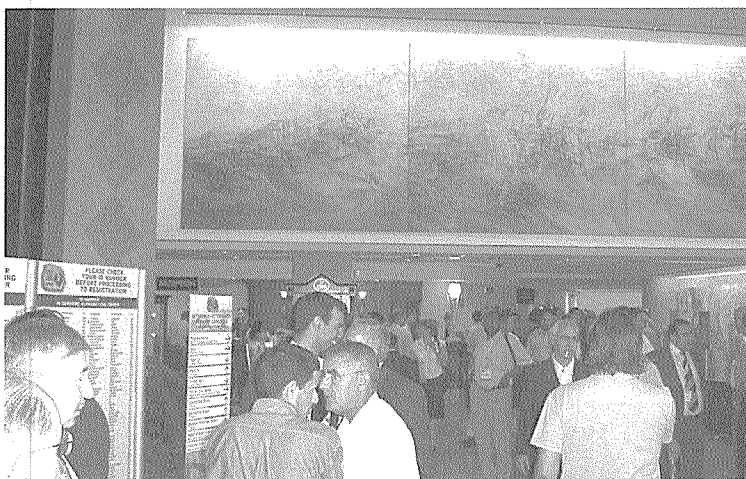
▲캠필로박터와 살모넬라의 내성 작용 기작과 전파에 대한 질문공세가 있었다

유럽의 콕시듐 피해 심각하다

마지막 주제로 발표된 콕시듐 해결책으로 우선 네덜란드에서 온 Landman 박사가 최근에 보고된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에서의 에이메리아 항콕시듐제 감수성 현황을 소개하면서 콕시듐제제에 대한 감수성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Szeleszczuk 교수는 폴란드 육계에 적용한 콕시듐제제 Baycox®의 실증자료를 발표하였다. 독일의 Grief 박사가 새로운 콕시듐증에 대한 특징을 발표하였다.

2. 14차 세계양계수의사회

1,000여명의 양계수의사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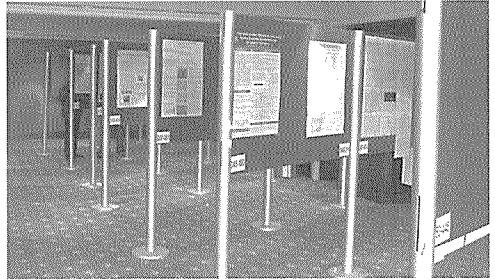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 터키 이스탄불 프라자 호텔에서 제 14차세계양계수의사 학회가 열렸다. 세계 1,000여명의 양계전문 수의사가 참석하였고, 한국에서 바이엘 윤현중, 박종열 수의사, 하림 권정택 수의사(부장)가 참석하였다.

행사는 프라자 호텔 3개 홀에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고, 포스터 발표도 있었다.

AI 예방백신 사례 집중 조명

심포지엄에서 집중된 논의 주제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지 대책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살처분 방법이 가장 좋지만 비용과 인간 감염을 막기 위한 최선책으로 백신을 소개하고 있다.

백신 개발은 백신 개발 선진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다국적 기업에서 AI 백신을 이미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거나 확대 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번 대회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대부분 AI 백신에 대한 실험 자료가 중점 소개되었다. (취재 | 김종준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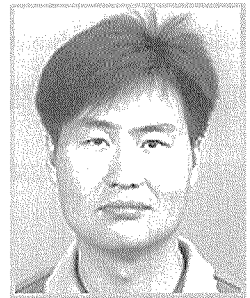


르 뵘 / 14차 세계 양계수의사학회를 다녀와서...

AI 발생국 예방기술 및 백신 정보교환 인프라 구축되어야...

윤 현 중 바이엘 코리아 수의사(차장)

필자는 8월22일부터 2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 14차 세계양계수의사학회 (World Veterinary Poultry Congress)에 참석하였다. 이 학회는 2년 주기로 세계의 양계관련 수의사들이 양계의 주요 질병에 대하여 폭 넓게 발표하고 논의하는 모임이다. 금년에는 이스탄불에서 4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학회에는 주로 유럽권과 중동 지역의 수의사들이 많이 참여하였으며 약 1,000명의 수의사들이 등록하여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중앙성 질병, 살모넬라 등 각종 주요 질병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이 중 국내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질병들과 금번 학회에서 주로 다루어진 질병 중 인플루엔자의 사례 및 대응 등을 위주로 간략히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조류 인플루엔자, 세계적인 관심 질병임을 다시 입증하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이번 학회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조

